

정치권 ‘패스트트랙 4+1 협상’ 돌입

검찰, 청와대 압수수색 정국 긴장 고조
여당, 한국당 원내대표 교체 변수 촉각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절차에 따른 처리’를 위해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과의 이른바 ‘4+1’ 협상을 본격화하면서 정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더욱이 검찰이 이날 ‘하명 수사·감찰 무마’ 등 의혹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를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정국의 긴장감은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이다.

이해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까지 시한을 두었던 민생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철회와 국회 정상화 요구에 한국당이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과 공식적으로 예산안, 검찰 개혁법안, 선거법 개정안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막판 협상 타결 가능성을 닫지는 않은 가운데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가 오는 10일로 종료,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데 따르는 변수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민주당은 청와대를 겨냥한 검찰 수사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특검 도입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특히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앞둔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A 검찰 수사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후

검찰이 경찰 압수수색을 통해 A씨의 유서와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검찰이 두렵지 않다면 왜 무리한 일을 벌이면서까지 증거를 독점하겠나”라며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서라도 이 사건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뜬금없는 강제수사와 허위사실을 동원한 언론플레이로 경찰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당장 정치를 그만두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최고위에서 검찰의 정치 개입과 수사권 남용 문제 해결을 위한 ‘검찰 공정수사 촉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설총 최고위원을 위원장에 임명하는 등 검찰과의 ‘전면전’을 예고했다.

주요 당직자를 교체하고 나 원내대표 임기 연장을 불허하는 등 지도체제를 정비한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

수처 설치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황 대표는 청와대 사랑채 앞 ‘투쟁텐트’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국민의 명령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더 치열하게 좌파 정권의 장기 집권 음모에 맞서 싸우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은 차기 원내대표 선출까지 강경 태세를 유지하며 필리버스터 후속 전략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3대 천문 농단 게이트’로 규정하고 국정조사를 요구한 의혹 사건들을 놓고 ‘여권 때리기’에 집중했다.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 김성원 대변인은 “청와대는 감찰 농단 사태를 덮으려는 일체의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며 “청와대는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논평했다. /김진수기자

주승용, 대한민국 반부패청렴대상 수상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율·사진)이 3일 한국반부패정책학회가 선정한 ‘대한민국 반부패청렴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반부패 청렴대상” 심사기준은 준법성·사회공헌성·반부패정책성과·지역주민 인식도·재정경제성 등 5개 지표가 사용됐으며, 주 부의장은 300명의 후보자 가운데 정치부문 4명의 수상자 중 한명으로 선정됐다.

주 부의장은 “청렴함은 성실함과 더불어 정치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상을 수상하게 돼 보람을 느낀다”며 “남은 임기동안 부정부패 없는 청정당당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입법 활동 등에 더욱 최선을 다해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김진수기자



불어 정치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상을 수상하게 돼 보람을 느낀다”며 “남은 임기동안 부정부패 없는 청정당당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입법 활동 등에 더욱 최선을 다해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김진수기자

최희용, 8일 ‘경제평론집’ 출판기념회

제2순환도로로 가는 공정경제

내년 4·15 총선에서 광주 서구를 지역출마를 준비 중인 최희용(사진) 전 참여자치21 공동대표가 오는 8일 오후 4시30분 제이아트웨딩컨벤션에서 경제평론집 ‘제2순환도로로 가는 공정경제’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이 책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최대 과제인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에 대한 사회구조적인 모순과 세대별로 분석하고 저자의 의견과 대안을 피력했다.

또 저자는 대한민국의 경제적 체질을



바뀌 소득주도성장을 완성시킬 수 있는 방안을 광주의 큰 문제인 ‘제2순환도로’와 ‘맥쿼리’ 문제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최 전 대표는 최근 감사원에서 발표된 제2순환도로 법안세 문제를 수년째 주장하던 인물로, “독점자본이면서 공공재를 다루는 기업들이 시장경제하고는 먼 특혜를 받고 있다”면서 “이를 시민에게 돌려주자”고 주장해 오고 있다. /김다이지자

광산을 민형배, 본격적인 총선행보 시작

오는 9일 공식 출마기자회견…15일 출판기념회 예정

더불어민주당 민형배(사진) 광주 광산을 지역위원장이 오는 17일 21대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총선행보를 시작한다.

민 위원장은 9일 오전 10시30분 광주 시의회에서 공식 출마기자회견을 갖고, 10일 오전에는 서울 중구 정동에 위치한 ‘상연재’에서 유명 유튜브 채널 ‘(새날)’을 통해 온라인 출마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밝혔다.

민 위원장은 지난 8월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퇴임 후부터, 충남 아산시장을 지낸 복기광(정무비서관), 서울 성북구



청장을 지낸 김영배(민정비서관), 서울 은평구청장을 지낸 김우영(자치발전비서관) 등 자치단체장 출신의 전 청와대 비서관 3명과 함께 유튜브 채널 ‘새날-파란남자들’에 고정출연하고 있다.

민 위원장은 15일 오후 4시30분 과학기술원 오통관에서 이틀 3명과 공동 출판한 ‘정치의 반전을 꿈꾸다’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김다이지자

與, 수도권 축소 ‘선거구획정 기준일’ 변경 검토

‘호남 지역구 감소 안돼’ 평화·대안신당 염두…‘대타협’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공식선거법 협상 타결을 위해 호남 등 농어촌 대신 수도권 지역구를 통합하는 방안을 고민 중인 가운데 이와 관련한 법률 준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에 ‘부칙’을 신설,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일을 변경하는 것이 그 방안이다.

당 관계자는 4일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은 호남 지역구 축소는 절대 불가하다고 한다”며 “따라서 수도권 지역구를 줄이는 타협안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선 인구 기준을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동안 의결정족수를 위해 필수적인 ‘호남계’ 야당을 설득하는 방안으로 지역구를 250석, 비례대표를 50석으로 각각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현재 지역구(253석)에서 3석만 줄이면 된다.

나아가 호남 지역구 대신 수도권 지역구 통합합을 통해 지역구 의석 규모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서울 노원·강남, 경기 군포·안산 등

이 후보지로 거론된다.

다만 이 같은 방안을 실행에 옮기려면 관계 법령 등 선거구 획정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 25조 1항의 1은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인구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19년 1월31일(5천182만6천287명)이 내년 총선을 위한 지역구 획정 기준일이다.

아울러 지역구 간 인구 편차가 2 대 1을 넘어선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따라야 한다.

이런 원칙 아래 지역구를 250석으로 설정하면 전남 여수시갑과 전북 익산시

갑 등은 통합합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당은 인구 기준일을 변경하기 위한 부칙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인구 변동 추이를 분석해 이들 지역에 유리한 시점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지난 20대 총선 때에도 여야 협의 끝에 2015년 10월31일을 인구기준일로 변경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인영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록 우리가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도 일관되게 끝까지 개혁의 길을 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진수기자

부동산경매 기초부터 전문가까지 완성

법학박사 장 윤 환

- 경매전문 “범무법인 로뎀” 범무실장
- 조선대 평생교육원「부동산경매과정」전담교수
- 부동산공인중개사협회 실무교육 강사
- 호남대학교 대학원 부동산학과 겸임교수
- 전남 교육연수원 “재산관리와 생활법률” 강사

※부동산경매 더 이상 실전강의는 없다※

- 부동산경매 사고방지를 위한 관련법률(판례)
- 부동산 신종사기 대처법과 함정물건 특수분석

※수강후에도 동호회가입 지속적인 정보교류※

경매 기본이론과 사례별 권리분석 및 실무강의

과 정	부동산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마스터과정	
시 간	매주 화요일	주간) 15:30~17:30 야간) 19:00~21:00
수강료	8주 : 120,000원	
개 강	2019. 12. 24. 화요일	
접 수	2019. 11. 11. - 2019. 12. 20. 까지	
접수처	조선대학교평생교육원 행정실 또는 홈페이지 <http://www.chosun.ac.kr/lifelong>	
대 상	1. 부동산에 관심은 있으나 자신이 없는 분 2. 부동산 관련 법률용어조차 전혀 모르는 분 3. 기본적인 상식만으로 경매에 종사하고 계신 분 4. 경매전문가로서 더 깊은 권리분석을 원하신 분 5. 노후대책 및 업종변경을 위한 부동산 재테크	

조선대학교평생교육원
수강신청 062)230-7700~2 (인터넷신청)

고층빌딩(급)처분!

금남로 대로변
중심상업지역 대지657㎡
연면적 7,470㎡ 승강기2대 주차86대
보10억 월6,000만원가능

***월세 임대용 최적,
다용도빌딩으로도 적합
==최고입지,최고상권,완벽한 건축물임
급처분가:상담 후 결정

***상가빌딩, 모텔, 가든, 나대지
지방, 섬땅등 투자 손님 다수 대기중입니다
연락주시면 바로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금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현대공인중개사
치평동 상무우리병원에서 50m
☎ 370-1900 ☐ 010-2006-0115

〈광주 인근 지역 매매 물건 구함〉

(장성 담양 나주 화순 함평 곡성)
물건의 종류 : 건물 / 대지 / 임야 / 전답 / 기타

〈광주 지역 매매 임대 물건 구함〉

물건의 종류 : 건물 / 토지

〈급매물 단 시일 내 책임중개〉

대표 공인중개사 김학제